

대구주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0. 04. 05. (가해) 제2208호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태 27,46)



『피에타(자비를 베푸소서)』, 루이스 드 모랄레스, 1560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인간의 변심과 주님의 사랑



칠곡본당 주임 | 김영우 마르코 신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절정인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받아들이신 성주간의 첫날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과 수난, 제자들의 찬미와 배신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됩니다.”라며 찬미를 받으시고, 군중들은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매맞고 고문당하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환호하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무서운 군중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그 열광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외쳐대던 군중들 속에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변함없이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과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제자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변덕스러운 모습과, 그래도 그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군중 가운데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2022년에 있을 차기 국제 순례지로 선택 하였습니다.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의 주제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루카 1,39 참조)입니다. 이에 앞서 두 해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의 두 성경 구절에 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제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입니다. 2021년 주제는 “일어나라. 나는 너를 네가 나를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사도 26,16 참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창조의 말씀이며, 이 말씀만이 꺼져 버린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루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은’ 상태일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관계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피상적이고 거짓되며 위선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루카 7,15 참조)

오늘날 우리에게 ‘접속’만 있을 뿐 소통이 없습니다. 전자 기기의 사용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 기기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꿈을 꾸어라.” “위험을 감수하여라.”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투신하여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젊은이 여러분의 바람에 다시 한 번 불을 댕기고 주위를 둘러싼 하늘과 별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십시오, 그리고 본모습을 찾으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주변에 지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얼굴에 생기를 되찾아 주어, 그 얼굴이 어떠한 가상 현실보다도 더 아름다워지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 준다면 누군가는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약 젊은이가 어떤 일에 열정을 기울인다면, 더 나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열정을 쏟는다면, 그는 마침내 일어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 그분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열정과 꿈을 활짝 펼치십시오. 열정과 꿈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성, 예술, 사회 분야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제안하십시오.

젊은이의 부활은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안에서 온 세상의 젊은이 모두를 맡겨 드린 그분을 봅니다. 성모님께 교회를 위한 전구를 청하며, 언제나 교회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새 생명을 간구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 때 참회 예식을 통하여 ‘고백 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 사제와 신자들은 죄를 반성하는 고백 기도를 바치며 참회합니다. 이때 소죄의 경우는 참회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고,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죄의 경우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적인 참회 기도에서 발전한 공동으로 죄를 참회하는 고백 기도는, 본디 사제의 사죄경(赦罪經, absolution)과 함께 고해성사 예식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고백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바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에는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참회 예식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미사 경본에 참회 예식은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회 예식의 모든 양식 끝에는 사제가 공동체를 위하여 죄의 용서를 간청하는 간략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례사제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할 때, “아멘.”하고 응답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631항 참조)

그런가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면 형제와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박사의 안드레아 (1792~1839년)

‘사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박사의(朴士儀) 안드레아는 1827년 대구에서 순교한 박경화 바오로의 아들로,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의’는 그의 관명(冠名)이다.

안드레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아버지는 천주교에 입교해 있었으며, 따라서 그는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박사의의 신앙심은 깊어져 그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주위의 귀감이 되었고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

안드레아는 가족들과 함께 충청도 단양의 가마기라는 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당시 그의 가족은 고향의 재산을 버리고 온 터라 가난하였지만, 교우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모두가 이를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하였다.

1827년의 정해박해가 발생하자 그의 가족들은 다시 경상도 상주 명에목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 그믐경 그의 가족들은 교우들과 함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상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상주로 끌려간 안드레아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내와 용기를 보여 주었다. 그는 어떠한 위협과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한 뒤 대구로 압송되었다.

대구 감영에서도 그는 여러 차례의 형벌을 신앙의 힘으로 참아냈지만 차츰 쇠약해지는 노령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몹시 아플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는 관장에게 아버지를 보살펴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장은 이러한 효

성에 감동하여 그들 부자를 함께 신문하였고, 옥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가 옥 중에서 보여준 효행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 바오로는 노령으로 인해 이를 끝까지 견디어내지 못하고 1827년 9월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대구 감사의 사형 선고문을 받고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드레아는 동료들과 함께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임금에게 올려진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사의는 천주교 교리를 배워 익혔으며, 마음을 다하여 이를 깊이 믿어왔으므로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대구 옥에 갇혀 있던 신자는 박사의 안드레아와 감사건 안드레아, 이재행 안드레아뿐이었다. 그들은 임금이 사형 집행을 윤허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쓰던 물건과 옷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839년 5월 26일(음력 4월 14일), 안드레아는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그때 이들을 바라보는 죄수와 옥졸들은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다. 이후 포졸들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으며, 신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특별히 공경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50,4-7	제 2 독 서	필리 2,6-11	복 음	마태 26,14-27,66
화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영 성 체 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천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가톨릭신문 유튜브

주님수난성지주일 주일미사

대구대교구 총대리
장신호 주교 집전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매일 05:00, 18:05(대구 FM 93.1MHz, 포항 FM 96.9MHz, 김천 FM 100.5MHz, 안동 FM 100.7MHz)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박성규 엘리시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서정길(요한) 대주교
1987년 4월 7일
- 이윤걸(토마스) 신부
2000년 4월 9일
- 신순균(바오로) 신부
1948년 4월 10일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4.21(화) 14:00~22(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

성경공부를 함께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문의: 교구 청년국, 255-1582
<http://dcy.co.kr>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4월_이정옥(안드레아) 신부
5월_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밀알회 후원자 모집

교구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밀알회가 함께 합니다.
형제적 사랑 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
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10개국 20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380차 ME주말: 코로나로 인해 취소
381차 ME주말: 6.12(금) 19:00~14(일)
장소: 한티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지침,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9:00 / 목 14:00
대경CEO합창단: 화 19:30~21:0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010)3512-1565

골롬반평신도선교사(해외) 관심자 모임

일시: 4.12(일) 14:00~17:00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대상: 만 23세~만 39세
문의: (010)3817-3810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여름성당캠프 모집

일시: 8.3(월)~5(수) / 8.5(수)~7(금)
대상: 초등 3학년~고등부
(봉사시간 발급)
문의: (043)879-0400~9
<http://www.kkotlove.or.kr>

채용 | 안내

AD 대학생 센터 안내

경산지역 대학생 활동과 신앙생활 지원
(카페AD, 스터디룸, 강좌 개설 등)
대학생 미사: 주일 17:00
장소: 압량대학생거점성당
문의: (010)5202-588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성지와 함께 꿈과 희망을...
(주)성지여행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신교 제200회
Speech.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 입사·취업 면접, 화술·회화, 대중소피지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 010-5538-3809
NAVER 스피치킴교육 강령미(사바나)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 노인 복지주택 /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성모님 사랑 안~
인력한 노후생활을~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단지 45 전자관 1층 239호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렐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2-2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논곡)성요셉요양병원장례식장 053-617-3644
☎ 053-650-4444 / 053-657-4444
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로 수익금은 전액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훈(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 2. 26)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재일병원 옆
김점임 (아네스)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컴퓨터 & 모바일 전자제품
컴퓨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제품, 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관련, 각종 케이블
우성네트웍
전명환(아브라함) 053-604-3171
대구시 북구 유용단지 전자관 2층 71호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